



## 수산·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40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간추린 지구촌 소식



## 지구촌 이슈

### 일본, 케센누마의 쾅치어가 회복 노력

#### ■ 일본 쾅치어업 관계자, 2006년도 본격적인 어기에 앞서 가격 유지에 고심

- 일본의 쾅치어업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2005년도에 대형쾅치의 양륙이 많고 또한 본격적인 어기에 앞서 일찍부터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성수기에 어가가 크게 하락하여 관련어업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 수산청과 관련업계는 올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된 선상선별기의 철폐, 어획량 평준화 제도 도입 등 어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면서 개선책을 꾸준히 모색하기로 하였음
- 홋카이도(北海道)에서는 도어련이 전국쾅치어업협회와 공동으로 본격적인 쾅치 판매 촉에 나서 소비자의 수요 환기를 통한 어가 하락 방지에 나서는 등 관련지역에서도 쾅치어가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는데
  - 일본의 미야기(宮城)현 케센누마(氣仙沼)에서도 본격적인 어기를 맞이하여 쾅치어업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음

#### ■ 선상선별기 철폐, 양륙물 다양화로 어가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

- 2005년도의 경우 케센누마에서도 조업개시일이 빨라 여름철부터 양륙이 시작되었는데, 어획물 또한 대형쾅치에 치우치면서 양륙물량이 전년도보다 5천 톤 이상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양륙금액은 줄어들었음
  - 어업관계자들은 문제의 원인이 선상선별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2006년도에는 선

상선별기를 철거, 양륙물의 크기 다양화로 어가 회복을 도모함

- 선상선별기가 철거되면서 크기별 썩치의 조성률이 대형 30%, 중형 40%, 소형 30%로 구성되어 어획물의 크기 구성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최초양륙 상장가도 단위당 280~100엔부터 시작되었음
  - 작년에는 신선냉장으로 출하되는 대형썩치가 양륙량의 절반을 차지, 과잉상태가 되면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산지의 유통가공업자도 어기가 시작된 이후 시작된 가격 폭락에 고심하였음
  - 올해 썩치 장기예보에 따르면 대형어의 내유량은 작년을 하회하나 중·소형어를 포함할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한 정도이거나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보된 것 만큼 주로 가공·냉동으로 출하되는 중·소형 썩치 양륙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선상선별기 철폐와 함께 썩치어업 해금이 작년보다 늦어진 것도 어가 회복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8월 28일 케센누마 어시장에 최초 양륙이 시작된 이후 200톤 전후의 양륙이 계속되었으며 9월에 접어든 4일 541톤, 5일 483톤 가량이 양륙되고, 8일에는 이번 어기 최고인 625톤의 썩치가 양륙되어 입찰종료와 동시에 선어 출하 및 냉동가공공장으로 운반되었음

## ■ 소비자 직거래와 다양한 가공품 개발 등 소비 확대에도 적극 나서

- 케센누마의 신선냉장 썩치는 일본 각지의 소비지시장 및 대형할인점, 가공공장 등 다양한 판매처로 출하되고 있음
  - 또한 택배 등의 방법을 통한 소비자 직거래에도 적극적으로, 어업단체, 중매업자, 소매업자는 물론 케센누마 시내의 호텔, 여관, 산지직매장센터 등 지역 대부분이 택배접수를 통해 '케센누마의 썩치'를 판매하고 있음
  - 택배판매의 대부분은 8월 초순부터 11월 상순까지 썩치가 가장 맛있는 가을에 한정되어 있으며, 판매업자 중에서는 썩치의 맛을 높일 수 있는 여타 품목과의 세트제품을 판매하는 등 썩치를 이용한 어식보급에 적극적임
- 또한 할복가공품(히라키), 미림건제품, 조림 등 전통적인 가공품은 물론 새로운 제품(다시마로 썩치를 감싸 뼈째 먹을 수 있는 제품, 훈제썩치 가운데에 치즈를 넣은 제품, 죽순과 다시마추출물을 넣은 조미액에 침투시킨 제품, 초절임, 초밥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 등) 개발에 적극적이며
  - 썩치축제 개최 및 타지역 축제 참가 등을 통해 '케센누마 썩치'의 홍보에도 적극

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꽁치어업은 어업호조에도 불구하고 출하시기 등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어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2006년도에 접어들면서 정부와 관련어업인을 중심으로 어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미야기현의 케센누마가 지역어업인과 유통관계자 등 관련종사자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기간어업인 꽁치어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그 출발은 좋은 편으로 보여짐
  - 케센누마 지역에서는 지역관계자들이 일체가 되어 출하조절을 위한 생산측면의 노력은 물론 판매확대를 위한 소비측면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데, 국내 수산분야에 있어 어가보전을 위한 선행사례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임경희, [imkh@kmi.re.kr](mailto:imkh@kmi.re.kr)>



## 주요뉴스와 분석

### ■ 중국, 수산물에 대해 Codex기준 적용범위 확대

- 지난 18일에 중국 농업부 장보우원(張寶文)부부장은 베이징(北京)시에서 개최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제28차 수산물전문위원회의에서
  - 중국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공평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수산물에 대해 Codex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현재 중국 냉동 새우, 냉동 어류, 냉동 어류 필렛 등 품목에 대해 Codex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아직 대부분의 품목이 Codex기준에 미달하여 수출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1990년부터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5,102만 톤으로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음
  - 그러나 수산물 수출은 약 79억 달러로 세계 수산물 수출액의 10%에 불과하였음
- 이처럼 중국의 수산물 수출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중국산 수산물의 품질이 국제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중국정부는 수산물의 안전성 대책으로 Codex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됨
- 중국의 수출 수산물에 대한 규격기준 확대는 수산물수출 확대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중국산 수산물의 품질수준을 높여 향후 수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됨
  - 따라서 중국 수산물의 규격기준 적용 동향과 이들 수산물의 국제교역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이은화, [yhli19@kmi.re.kr](mailto:yhli19@kmi.re.kr)>

### ■ 일본, 연말 랍스터 수급에 지장 발생 우려

- 일본에서 명절(설) 선물용 랍스터 수요가 경기회복의 여파로 증가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급지인 호주, 쿠바, 남아프리카 등의 양륙량 감소와 중국의 왕성

한 구매로 인해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쿠바는 재작년 어업규제를 통해 마리당 180~250g 크기의 어획을 금지하던 것에서 작년부터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250~300g에 대해서도 조업을 금지하면서 냉동랍스터의 대일본 수출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또한 호주의 어획량도 감소세를 보이는 등 주요 산지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음
- 일본으로의 냉동물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연초 구정에 중국, 대만, 홍콩의 활랍스터 구매 의욕이 예년 이상으로 강해 활어가 고가로 거래되면서, 일본 수출용 냉동제품의 원료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음
  - 2003, 2004년에는 일본내 어획량이 많고 자국내 시세도 그다지 좋지 않아 재고가 쌓이기도 하였으나 작년 가을부터 수요 증가에 맞물려 공급이 감소하면서 일본내 재고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음
  - 취급업자에 따르면 현재 가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남아프리카산 랍스터(10kg 당 36마리 크기)의 도매가격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약 2천 엔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일찍이 수산물 수입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수산물 무역의 주도권을 행사해 왔으나, 최근 품목에 따라서는 일본보다 강한 수요를 지닌 국가가 등장하면서 랍스터의 사례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자국내 수급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현저한 실정으로, 랍스터, 다랑어 등 고급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세계시장이 가격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여타 국가의 수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세계적으로 자국은 물론 공해상의 자원보호를 위한 각국 또는 지역간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전체 수산물 공급은 일정한 수준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아시아권에서 대량 소비국가가 속속 등장하면서 세계 수급 여건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 국내 수산물의 평균 자급률은 55.4%(어개류의 2004년도 자급률)로 수입 의존도가 매년 커지고 있으며, 또한 명태 등 특정 품목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계 수급여건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과 국내 수급여건에 대해 면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임경희, [imkh@kmi.re.kr](mailto:imkh@kmi.re.kr)>

## ■ 유기양식어류 생산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 기준의 필요성 요구돼

- 전 세계적으로 유기양식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양식수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생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EU의 경우 1998년 이후 유기 양식지 면적이 25% 증가하였음
  - 주로 연어, 메기, 틸라피아 등이 유기 양식기법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1998년 유기 양식지 면적이 230만 헥타르였으나 오늘날에는 550~600만 헥타르에 이르러 약 25% 증가하였음
  - 이는 EU 수산물 양식 생산 면적의 5~6%를 차지하는 수준임

### 【 1 EU 유기 양식지 면적 】

단위 : 헥타르

국가	1998	2002	2004	연평균 성장률
EU 15개국	2,280,645	4,886,979	-	21.0%
영국	78,833	741,174	695,619	75.1%
스페인	269,465	665,055	725,254	25.3%
프랑스	218,775	517,965	550,990	24.0%
이탈리아	577,475	1,168,212	1,052,002	19.3%
독일	414,293	696,978	734,027	13.9%

- 유기양식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유기양식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도출되지 않고 개별 국가마다 생산 기준이 달라 문제 시 되고 있음
  - 유기양식수산물에 대한 국제 기준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참여한 견해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기 양식 수산물은 아직 요원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은 유기양식수산물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었고,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격에 프리미엄을 더 주고서라도 소비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함
- 현재 유기양식수산물이 미국, EU를 중심으로 생산, 소비되며 동남아의 일부 지역에서 새우를 유기양식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 특히 동남아의 태국, 인도산 새우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이러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 국내 업계에서도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 추세에 주목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유기수산물 수출시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정명화, [jmh@kmi.re.kr](mailto:jmh@kmi.re.kr)>

## ■ EU, Biscay만에서 앤초비 조업 재개를 위한 평가 실시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Biscay만에서 앤초비 조업을 계속 금지할 것인지 또는 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 중이라고 발표하였음
  - 지난 7월 Biscay만 수역의 앤초비 생물량은 1만 8천 640톤으로, 최소 생물학적 수준인 2만 8천 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앤초비 조업이 금지되었는데, 이것이 올 12월 31일에 만기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올해 12월에 개최될 어업장관회의(Council of Fishery Ministers)에서 두 가지 방안 중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할 계획임
- 조업 금지가 자원을 보존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요하지만 각 유럽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조업 재개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어 왔음
  - 현재 앤초비 자원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유럽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TAC가 도입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음
  - 스페인 정부의 앤초비 자원상황 평가결과에 조업을 계속 금지할 것인지 또는 재개할 것인지의 여부가 달려있음
- 현재 유럽은 어업자원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인 어족자원 보호 정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기 위해 금어기 실시, 조업금지구역 실시, 허가척수제한, 금지체장 같은 수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TAC 제도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 수산자원 상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생태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부족한 어종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강형덕, [thymos@kmi.re.kr](mailto:thymos@kmi.re.kr)>





## 간추린 지구촌 소식

### ■ 산터우시, 13개 새우수출회사 미국의 단독 관세율 적용

- 광둥(廣東)성 산터우(汕頭)시의 13개 새우수출회사는 미국의 새우반덤핑에 반항해 미국상무부를 상소한 결과, 13개 회사가 53.7%의 단독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산터우시 수산물가공수출입협회 천(陳)회장에 따르면 단독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발하여 새우수출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하였음

### ■ 1~8월, 하이난성 틸라피아 수출량 53.2% 늘어

- 1~8월, 하이난(海南)성의 틸라피아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1만 9,800톤, 5,71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3.2%, 56.3% 증가하였음
  - 2005년에 하이난성의 틸라피아 양식 생산량은 14만 6,000톤으로 하이난성 내수 면양식 생산량의 70%를 차지하였음

### ■ 1~8월, 산터우시 오징어 수출액 51.7% 늘어

- 1~8월, 산터우시의 오징어 수출량은 9,084톤이고 수출액은 3,03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7% 증가하였음
  - 최근 산터우시의 오징어수출량은 연간 1만 톤을 초과하였는데, 90%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 홋카이도, 해삼가격 폭등으로 불법어업 적발 늘어

- 중국 및 대만에서 해삼 수요가 증가, 가격이 폭등하면서 홋카이도(北海道) 내에 해삼을 대상으로 한 불법어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자로부터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해삼은 고급식 재료와 한방약재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어업관계자에 따르면 일본내 시장가격이 전년대비 1.5배 가량 뛰는 것으로 알려짐



## ■ 미쯔비시전기, 사베트얼음을 이용한 수산물 선도유지 기술 개발

- 미쯔비시전기(三菱電機)는 '사베트아이스 제조시스템'을 개발, 향후 신규사업으로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에 개발된 것은 생선을 상처 입히지 않고 선도를 장기간 보존하는 사베트얼음을 제조하는 장치로, 업체는 수산물 선도유지에 사용되는 쇠빙에 비해 냉각속도 및 균일성 등의 측면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음

## ■ 베트남, 새우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

- 어업부(Fisheries Ministry)는 시장에 새우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새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하지만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이 타이거 새우 구매 요청을 해 온 만큼 올해 안에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말레이시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치어 방류

-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Sungai Acheh 지방에 1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음
  - 제 9차 말레이시아 계획(The Ninth Malaysia Plan)의 일환으로 정부는 수산분야 발전을 위해 437만 달러를 배정하여 생산량 증가와 양식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음

## ■ 미얀마, 수산물 수출의 통관절차 변경

- 지역 수산물 수출업자와 수출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얀마는 9월 달에 수산물 수출 절차를 변경하였음
  - 정부는 UN 기준에 합치하는 인증제도를 만들고, 수산물 수출업자들이 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과정을 없애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 ■ 미 미조리 주, 외래 어종 은잉어의 동물원 사료 활용 방안 제안

- 미국 미조리주의 세인트 루인즈 동물원의 과학팀은 외래 어종인 은잉어(Asica silver carp)가 미국 중서부 지역 강 연안의 먹이를 포식하는 등의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자 동물원의 동물 사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미국은 내수면 어항에서 발생하는 조류와 플랑크톤 수를 통제하기 위해 1993년에서 1995년 사이 은잉어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은잉어는 하루에 자신의 무게의 40%에 해당하는 플랑크톤을 먹어치우면서 생태계의 위협인자로 간주되었음
- 이에 대해 세인트 루이즈 과학팀은 은잉어를 동물원의 먹이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미조리 주 200여개 이상의 동물원에서 사료의 25%가 은잉어로 대체될 것임

### ■ 멕시코, 오징어 생산량 작년보다 1.5배 늘어나

- 멕시코 농축수산업 및 지역 개발부(Agriculture, Livestock, Rural Development, Fisheries and Food Department)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15일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캄페차 주의 오징어 생산량이 2,893톤을 기록하였음
  - 이는 전년도 동기간의 생산량보다 1.5배 늘어났으며, 생산액은 720만 달러로 전년보다 3배 늘어난 것임
  - 오징어의 주요 양륙지역은 이슬라 아레나(680톤), 캄페차(728톤), 참포톤(803톤) 등이며, 오징어의 평균단가는 kg당 2.5 달러임

### ■ 아르헨티나, 멸치잡이 뚱어로 대 스페인 수출 늘어나

- 아르헨티나의 수산부(Undersecretariat of Fisheries and Aquaculture)에 따르면 1~9월까지의 멸치 생산량은 6,570톤이며, 이 중 8월 한 달 동안 3,551톤이 생산되었음
  - 멸치가 생산되는 지역은 마 델 플라타 지역(6,232톤)으로 아르헨티나 멸치의 9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며, 그 외 푸에르토 마드린과 로손지역에서 각각 318톤과 20톤 생산됨
- 멸치 생산 증가와 함께 스페인으로의 멸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유럽 캐리비안 지역의 멸치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